

보호자용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



보호자용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



개발진

집필진

남순임(평원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이미조(외솔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지혜(서울신답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기획 및 검토

이선영(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정혜금(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양하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연구협력관

유상범(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한유화(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관)
김주숙(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사)

본 자료는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043)-530-9170

보호자용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



CONTENTS

CHAPTER 01



사이버폭력의 이해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04

사이버폭력의 특징 07

SNS 사용 현황 07

CHAPTER 02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09

사이버폭력 대처 방법 11

CHAPTER 03



참고

아동, 청소년의 15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 지도방법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16

사이버폭력 발생 시 18
사안처리 절차

사이버폭력의 이해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폭력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모욕

-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 떼카(다굴), 카톡감옥, 방폭, 멤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상대를 따돌림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사이버 강요

- 속칭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갈취

-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금품갈취를 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한 가지 사례에 사이버폭력의 여러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예) 패드랍: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시상황

저격	○ 개인이 SNS상에서 피해 대상에게 게시글이나 댓글로 비난하는 행위
패드립	○ 패륜+드립 혹은 패밀리+드립의 합성어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그 외 가족 친지를 농담의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행위
불법촬영 (유포)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지인능욕	○ 온라인상에 게시된 사진(예: 나체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하는 행위
디지털 그루밍	○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
몸캠 피싱	○ 온라인상에서 서로 몸을 보여 주면서 화상 대화(몸캠)하도록 유도하여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보여 주거나, 상대방에게도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찍게 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떼카	○ 단체대화방에서 한 사람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을 하며 괴롭히는 행위
방폭	○ 피해학생을 단체대화방에 초대해 놓고 모두가 다 퇴장하여 온라인상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카톡감옥 (카톡감금)	○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단체대화방에 지속적으로 초대(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괴롭히는 행위
멤놀	○ 멤버놀이의 줄임말로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역할놀이를 하다가 역할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명을 몰아서 비방하고 따돌리는 행위
랜선팸 (젠리팸/단팸/단톡/틱톡크루)	○ ‘랜선팸’은 온라인에서 취향에 맞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유대를 쌓는다는 의미로 ‘팸’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는 행위 ○ ‘젠리팸’은 위치 공유 서비스 ‘젠리앱’의 친구 맺기 기능이고, ‘단팸’은 단체 O이스크 메신저, ‘단톡’ 단체 카톡방, ‘틱톡크루’는 크루원을 모집하는 기능
부계	○ SNS나 게임 등에서 부계정을 만들어 타인의 허락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하고 친구들을 따돌리는 행위
용돈벌이	○ 타인의 카카오톡 계정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강제로 갈취하여 이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
와이파이서클	○ 핫스팟 연결을 강요하여 공짜로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게임부주	○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여 레벨을 올려주거나 아이템을 얻어주거나 하는 사람을 의미하나,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요구(금품요구, 협박)를 하는 행위
인증놀이	○ 수치스럽거나 하기 싫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여 인증하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의 특징

사이버폭력은 은밀하게 발생한다.

비대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

시공간적 제한 없이 사이버폭력이 행해지거나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가해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익명성의 특징을 이용하여 다수의 가해자가 손쉽게 사이버폭력에 가담할 수 있다.

소문이나 허위 사실이 빠르게 확산된다.

SNS,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등이 빠르게 복제, 확산되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장 처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피해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의 자료는 무한복사와 빠른 전파성으로 자료의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피해 기록이 오랫동안 남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평생 기록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SNS 사용 현황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페이스북

- 인맥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쌓기 위해 활용하며 ‘좋아요’, ‘친구추천’, ‘태그’ 기능이 있다.

facebook

- 태그기능을 통해 지목하거나, 익명이지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여 집단으로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타인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발생할 수 있다.

2) 트위터

-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이 중심이 되는 SNS로 글자의 제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우울계, 자해계, 자살계, 일탈계 등 '~계'라고 불리는 군집이 있다. 각 군집에 속한 학생들이 자해행위와 관련된 자극적인 사진을 올리고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조 경향이 높은 연령대의 주의가 필요하다.



3) 카카오톡

- 가장 많이 쓰이는 메신저 서비스 중 하나로 개인 및 단체 채팅기능과 사진, 파일 등의 전송이 주된 기능이다.
-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사이버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떼카'와 '카톡감옥', '방폭' 등이 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이 가능한 채팅기능으로 사이버상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의 만남으로 이어져 사이버 스토킹,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신상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폭력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당사자를 비방하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4) ASK

-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익명으로 사용자에게 질문 글을 남기거나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계정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연동하고 계정 주소를 남겨 질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ASK앱으로 남기는 질문 중에는 인격모독, 인신공격, 성적인 발언이 있고, 익명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댓글로 남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5) 디스코드

- '게이머 전용 SNS'로 만든 플랫폼으로 음성, 채팅, 화상회의 기능이 있다.
- 봇과 서버라 불리는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지인 혹은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이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게임을 하던 중 친구들에 대한 뒷담화와 패드립 등으로 사이버폭력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녹음기능을 통해 그 상황을 녹음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n번방 사건'에 이용되었던 텔레그램의 '박사방' 이용자들이 디스코드로 넘어오면서 성착취 관련 게시물에 무분별하게 퍼지게 되었고, 클릭을 통해 영상물을 받을 수 있고 채널 개설과 일대일 대화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학부모(보호자)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녀(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예방 수칙

1) 사이버폭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 자녀와 함께 사이버폭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며, 부모가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평소에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 과도한 욕설, 과도한 줄임말, 은어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의 잘못된 언어사용에 대해 아이 스스로 자신의 언어습관이 남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 검색엔진의 검색창에 자동완성 기능을 활성화시켜 자녀가 무엇을 많이 찾아보는지를 살펴보고, 자녀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인터넷 브라우저의 즐겨찾기 목록, 이용기록 목록을 살펴보고 자녀들이 가입한 사이트,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들의 성격을 알아둔다.
- 자녀가 주로 활동하는 게시판 등에 대해 알아두고, 자녀가 올린 글과 자료 등의 활동에 대해 부모가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4)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과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아둔다.

- 사이버폭력을 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평소에 확보하고 자녀에게 알려준다.
- 피해를 당했을 때에 상담과 정서적 안정 및 보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진단회피

- 1 국번없이 117로 신고
- 2 전화가 힘든 상황일때는 #0117로 문자 상담 또는 신고
- 3 인터넷 사이트 안전드림117센터(<http://www.safe182.go.kr>) 에서도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 4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

※ 피해 자료를 캡처한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경찰신고 이외에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침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www.kocsc.or.kr)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 인터넷을 하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폰에도 반드시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설치하기 전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음란폭력물을 차단해 주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모두 설치한다.
- 설치 시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아이가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 음란폭력물 차단 프로그램

- 컴퓨터 : 그린 I-Net(www.greeninet.or.kr/)

※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서비스

- 스마트 안심드림 : <https://ss.moiba.or.kr/>

-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 주고, 아이가 반대해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의 방침을 이야기해준다.

6) 자녀들이 직접 해결하려 들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며 반드시 보호해주겠다는 의지를 평상시에 알린다.
- 아이들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본인이 직접 맞서 싸우거나 다른 친구들과 힘을 합쳐 대항하려고 하는 행동은 자칫하면 새로운 폭력을 낳는 경우가 많음을 강조하여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한다.

7)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알려준다.

- 현실에서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에 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도한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감지 사례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헐담이 많이 올라온다.
- SNS의 상태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자녀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출처: 교육부(2022).

사이버폭력 대처 방법

사이버폭력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 사전에 알아두고, 대처 방법을 이해하여 사이버폭력에 노출된 자녀에게 공감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한다.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

1) 사건의 파악

- 자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절대 아이를 탓하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 자녀에게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에 따라 차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아이의 심정을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경청한다. 설명을 반복해 들으면서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둔다.

2)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

-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는다. 설부른 대응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
- 자녀의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한다. 교사의 조언 또는 학교의 대처 과정에 신뢰를 가지고 침착하게 상담에 임한다.
- 학교의 도움을 얻기 힘든 경우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신고

- 피해자와 부모가 사건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고가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담당교사 또는 전문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다.

4) 처리

- 학교, 도움기관 또는 경찰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사건의 전체 처리과정과 결과를 분명히 확인한다.
- 가·피해자 또는 상대방 부모, 관계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조속하고 원만한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자녀에게 잘못이 있다면 부모가 함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5) 처리 이후

- 자녀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 가·피해 자녀의 교육이나 치료에 부모도 함께 참여하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변화에 큰 도움이 된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 2019).

학부모(보호자)의 바람직한 역할

1) 공감하고 지지한다.

- 사이버폭력 피해로 인해 생긴 자녀의 억울함과 힘든 마음을 공감하고 지지한다.
-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빠져 화를 내거나 너무 당황하면 자녀를 제대로 도울 수 없다.
- 자녀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자녀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다그치지 않는다.

- 흔히 부모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의 전후 상황에 대해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 성급한 마음은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아이를 다그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은연중에 피해자녀에게 자녀가 잘못이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이는 자녀를 수치심이나 자책감에 빠지게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3)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아이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과도한 맞장구를 삼가되 충분히 아이가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 공감을 표시해준다.
- 당장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을 시도하는 등의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증거 확인 후 교사와 관련 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는다.

4)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아이를 다그치거나 본인의 잘못 탓으로 몰아붙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부모가 반드시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면서 아이를 안정시킨다.
- 피해 아이의 이야기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건 발생을 인지한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는 아이 혼자 있게 두지 말고, 부모나 형제, 친구 등의 가까운 사람이 같이 있어주는 안전 대책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확인한다.

-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입수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보강한다.
-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 또는 SNS내용들을 증거물로서 출력하여 보관한다.
- 이메일은 헤더를 포함하여 전체 본문내용 모두를 저장한다.
- 다른 목격자와 교사와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로 하여금 어떠한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고, 가해자들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증거 확보 방법

- 1 채팅방에서 화면캡처 기능을 찾는다.
- 2 화면캡처 기능을 활성화한다.
- 3 다시 한 번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난 후, 지금부터 화면캡처를 할 테니 폭력을 멈추라고 선언한다.
- 4 캡처된 파일을 잘 저장한다.
- 5 일시와 장소를 별도로 적어 두거나 파일명에 기록해둔다.
- 6 파일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원본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두고 그림파일 크기를 줄여 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해상도를 조절해본다.

[게시글, 댓글, 사진 등의 경우]

스마트폰(캡처), 컴퓨터(스크린샷) 기능을 활용하여 캡처하거나 캡처가 어려운 경우 해당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상대방 ID가 확인되면 게시일시·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ID 미확인 시 게시일시, 인터넷주소 전체, 접속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하면 된다.

[영상, 전화 등의 경우]

영상일 경우 해당 영상을 저장하거나 저장에 어려운 경우 해당 영상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통화의 경우 스마트폰 녹음기능을 활용하거나 녹음이 어려운 스마트폰의 경우 다른 저장 매체를 활용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방법도 있다.

※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정보진흥원(2012).

참 고

? 아동, 청소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 지도방법

연번	주무부처	담당기관	유형	내용	QR코드
1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 폭력	자녀의 사이버폭력! 이렇게 예방하세요.	
2				디지털 리터러시, 우리아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3				사이버음란물! 우리 아이는 안전할까요?	
4				사이버폭력예방 관련 다양한 동영상 탑재(총 8가지)	
5	위(Wee)닥터 (열린의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동영상 탑재(총 114개)	
6			사이버 폭력	온라인상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 지도법	
7			인터넷, 게임중독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중독! 올바른 접근방법은 무엇일까?	
8			스마트폰 중독	10대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카운셀링 - 소아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6)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는다.

- 사이버폭력 사건이라는 판단이 들고 학교와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하거나 가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 부모가 개인적으로 만나 응징하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에 신고한 다음에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와의 격리를 학교에 요구한다.

7)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 후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112, 117)한다.

- 먼저 학교에 신고하고, 교사와 상의한 후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며, 교사 및 전문 활동가와의 상담 결과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
- 불필요한 경찰서 출입은 관련 학생 모두에게 피해가 되므로, 경찰 신고 여부는 항상 부모 혼자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 본 후 결정한다.

8) 학교나 경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전체 처리과정을 확인한다.

- 신고 이후에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고, 전체 사건처리의 과정을 확인하고 알아두어야 한다.
-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자세히 파악한다.
- 대부분의 사건에서 교사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를 책임져야만 하는 중립적 입장에 처하게 됨을 이해하고, 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나 책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나 또 다른 피해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대화를 나눈다.
- 등교를 두려워한다거나 신경질적 반응이 줄지 않았는지,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거나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는 등의 징후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한다.

10) 가해/피해 자녀의 교육이나 치료에 부모도 함께 참여한다.

- 관련 기관에서 행하는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등에는 부모도 함께 동행하여 같이 혹은 따로 치료에 참여한다.
- 부모가 함께 교육과 치료를 받을 때에 아이들의 치료 경과가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 2019).



연번	주무부처	담당기관	유형	내용	QR코드
9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의사소통	부모 자녀 의사소통 방법(10.21) ○ 사춘기에 코로나까지 청소년기 너무 힘들어요! 서현석(행복한아이연구소)	
10			자녀양육	올바른 자녀 지도법(10.28) ○ 우리아이 양육 코칭 다 들어줄게: 오은영(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클리닉)	
11			대인관계	우리아이 또래관계 돕기(9.23) ○ 코로나 시대의 우리 아이 공부와 대인관계 어떻게 하죠?: 유한익((서울우리아이정신과의원)	
12	서울시 교육청	서울학부모 지원센터	자녀양육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부모의 역할	
13	한국 콘텐츠 진흥원	한국콘텐츠 진흥원	스마트폰 중독	Z세대의 스마트폰 사용 문화와 과의존 위험성, 바른 사용을 위한 지도자의 실제적인 지도 방법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기관	유형	내용	QR코드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신고	사이버범죄신고	
 경찰청		경찰청 학교폭력관련 실시간 상담 - 신고 상담전화 117 - 신고 상담문자 #0117	

기관	유형	내용	QR코드
 17개 시도교육청	상담	학생위기종합상담서비스 (교육청 위(Wee) 센터, 학교 위(Wee) 클래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치유·회복 지원 (해맑음센터, 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 - 상담전화 02-582-8118	
 청소년전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4시간 청소년 온오프라인상담 - 상담전화 1388(모바일: 지역번호+1388) - 상담문자 #1388	
 교육부 상담미샘		상담미샘 카카오톡 채널 상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교육부 다들어줄게		다들어줄게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24시간 실시간 상담 - 상담문자 1661-5004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스북 메시지	
 푸른나무재단		폭력 온라인 상담서비스 - 상담전화 1588-9128	
 스마트심센터	예방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및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 상담전화 1599-0075	
 스마트안심드림		사이버폭력 감지서비스 제공 어플 (보호자용, 자녀용)	



사이버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 절차

학생 대상의 사이버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 접수가 되면,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고 보호자에게 통보를 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포함한 즉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사안조사 후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고 사안조사 보고를 한 뒤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조치가 내려진다.

Q 사안처리 흐름도



※ 출처: 교육부(2022).

참고문헌

교육부(202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 사이버폭력 상담 및 피해자 치유를 위한 상담개입 치유 프로그램.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9). 우리 아이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도우미(학부모 교육자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2020 초등 고학년 사이버 어울림 기본역량.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선생님을 위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이해와 대처 요령.



CRM 2022-50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

보호자용

발 행 일 2022년 6월
발 행 인 류방란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전 화 (043) 530-9114
팩 스 (043) 530-9819
홈 페이지 <http://www.kedi.re.kr>
디자인/인쇄 리드릭 (02) 2269-1919